



**고창군-세종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협약**

고창군은 지난 13일 세종대학교(총장 임종화)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수, 세종대학교 인문·IT 융합연구원 김수연 원장, 인문대학 이경량 학장, 고창군가족센터 정혜숙 센터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대학교는 AI 기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창군에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을 마련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이 문화 활동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윤리적 판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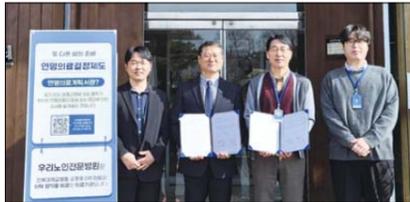
**전북대병원, 우리노인전문병원과 공용윤리위 위탁협약 체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주에 위치한 우리노인전문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노인전문병원 원은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윤리적 심의와 자문,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도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심버요양병원, 반월요양병원, 석정엘카르요양병원, 정음서립요양병원, 호성전주병원 등 총 13곳이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손지선 공용윤리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완주 영어·중국어학교, 신입생 120명 입학**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영어·중국어학교가 지난 14일 신입생 120명의 입학식과 함께 2026학년도 대장정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언어 학습을 희망하는 지역 학생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에 따라 총 120명의 학생이 입학해 배움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영어학교가 3번째, 중국어학교가 19번째 신입생을 맞이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언어 교육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18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어학교는 그동안 축적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원어민 강사의 생활 중심 언어 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전 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영어능력인증시험인 TOSEL과 중국어능력시험인 HSK 대비 과정을 병행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성취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영어·중국어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영어능력인증시험인 토셀(TOSEL)과 중국어능력시험인 HSK 대비 과정을 병행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성취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완주=염재복기자



**남원 청소년지원센터, 남원청년마루와 협약 체결**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2일, 남원청년마루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 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공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모두의 존엄 보장...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전주시가 모두의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전주시청 별관 15층 강당에서 전주시역 34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이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인권 가치에 기반해 시설을 운영하고,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오선영 사회복지 인권나루: 숲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오 대표는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는 인권 전문가이다. /권희성 기자



영위원회 위원장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는 인권 전문가이다. /권희성 기자



**광활농협, 2025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

김제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용)이 최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종합업적평가는 도시형과 농촌형 농축협으로 나누고 다시 소그룹별로 여러 분야의 평가기준을 합산하여 우수한 농협에 시상하는 제도이다.

임영용 광활농협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하며 농협창립 이후 최초의 성과이고 이 모든 영광은 조합원님들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협으로 지속적인 자산강진성과 농업인 실익증대에 농협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 성산 주민자치위, 깨끗한 마을 조성 나서**

군산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성산면은 지난 13일 금강하구둑 일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달리고 싶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금강하구둑 일원을 중심으로 도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됐으며, 특히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군산(배민)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성산면 구간 마라톤 코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청소 활동이 펼쳐졌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주제일로타리클럽, 전북노인복지관서 행복나눔 떡국 봉사**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최성태)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제일로타리클럽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왕진숙)을 찾아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떡국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주제일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떡국과 꿀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식하며 인부를 여주교, 소통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클럽 측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차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단 사전 교육 진행**

남원시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돕기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단' (이하 예방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예방단의 활동 다짐과 함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예방단은 시의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인 '심상생생 건강교실' 강사들로 구성된 지역 특화 예방 조직으로, 지난해 3월에 30명의 강사로 출범한 예방단은 11월까지 관내 경로당 85개소에서 총 5,335회에 걸쳐 1만여 명의 주민에게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5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예방단 인원을 32명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자체 제작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기법을 전수하는 등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교육 내용은 △2주 이상 기침 시 검진 필수 △아외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 △물바른 손 씻기 등 실생활 밀착형 수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착용과 기피제 사용법,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결핵 검진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강대연)는 지난 12일 전직원이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농협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법농협 공신력 제고에 기여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대연 지부장은 "김제시지부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구현에 앞장서고, 농협 본연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고부면, 기초생활기초조사 주민위 선진지 견학**

정읍시 고부면은 지난 12일 기초생활기초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고창군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견학단은 군산시 회현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군 흥덕면 흥덕문화복지관(하모니센터)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거점 시설의 활성화 사례와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어르신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와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5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예방단 인원을 32명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자체 제작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기법을 전수하는 등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용)는 지난 13일 부안소방서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보 내용은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통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119구급차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원 이송 협조 △119구급차의 폭언·폭행 금지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활용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